

2026/03/27

작성자: 강동현 (게임소프트웨어전공 2학년)

MapleStory



▲ '메이플스토리' 렌 이미지. [사진=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

메이플스토리, BTS 진과 협업 이벤트



▲ '메이플스토리' 공식 유튜브 썸네일. [사진=메이플스토리 공식 유튜브 썸네일]

3월 23일 메이플스토리는 23주년의 기념해 4년전 공식 유튜브 콘텐츠인 '출근용사 김석진 리턴즈'를 활용하여 BTS 진과의 2차 콜라보 이벤트 진행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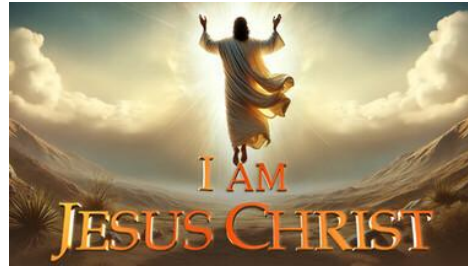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는 4개가 나올 예정이며, 그 안에는 게임 이벤트와 아이템 기획 과정 참여와 게임 NPC 진의 목소리 더빙하는 모습 등의 모습이 나올 예정이다.

콜라보 이벤트 내용으로는 출석만 하는 것으로도 '성장의 비약', 'EXP 교환권', '경험치 3배 쿠폰', 'VIP 부스터' 등 레벨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성장 재료 상점이 있다. 또한 의자와 라이딩, 칭호, 의상 등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의 반응으로는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던 본인의 이득이 아닌 신규 유저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방향으로 기획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인벤토리에 쌓여만 가는 아이템 처분에 대한 건의는 게임 플레이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이었다.

해당 이벤트는 3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콜라보 이벤트로 경험치에 대한 부담감과, 23주년 이벤트로 자석 펴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냥에 대한 피로도를 줄여줌으로써 신규 유저 유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수 시뮬레이터인 'I Am Jesus Christ' 4월 2일 정식 출시



▲ 'I Am Jesus Christ' 메인 이미지. [사진=I Am Jesus Christ 스팀 상점 홈페이지]

스페이스 보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I Am Jesus Christ'가 4월 2일 스팀에서 정식 출시한다. 게임을 통해 경건하고 몰입감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게임이다. 1인칭으로 진행되어 예수의 삶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오픈월드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등 사실적으로 재현한 성지를 탐험하며 스토리가 진행되는 오픈월드 게임으로 진행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0종 이상의 기적과, 제자들을 포함한 60명 이상의 핵심 인물과 상호작용하며 마지막 만찬 등 중요한 순간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출시일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 4월 2일은 예수가 죽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인 '성목요일'(Maundy Thursday)에 해당하며, 부활절을 약 열흘 앞둔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의 다양한 기독교 신자들 모두에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이다.

정식 출시 소식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의 반응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1인칭으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선하다.', '신자가 아니어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존재를 게임 캐릭터로 소비하는 것이 불편하다.', '성경의 메시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 경복궁에 무인발권기 기증



▲ 라이엇 게임즈 경복궁 무인발권기 기증식 사진. [사진=국가유산청 보도/설명]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경복궁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발권기 5대를 기증했다. 무인발권기는 기존에는 10대로 기증된 5대가 추가 설치된다면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객들이 매표와 입장에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후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건의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환수했다. 또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축책'이 2023년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되었다. 유물 환수·매입 뿐만 아니라 후원에 지속적으로 해와 2025년 누적 후원 규모 100억원을 넘기며 '국가유산 사회공헌 우수기업'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조상으로부터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추진하게 된 하나의 공동체 문화이다.

국가유산지킴이 운동은 국가유산을 있는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책임과 의무지만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가꾸는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값진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다.